

심천화웨이기술주식회사, WiMax 통신기술 특허연맹에 가입

심 천화웨이기술주식회사(이하 화웨이)는 와이맥스(wimax) 특허연합인 공동특허연맹에 가입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인텔, Cisco, 삼성, 알카텔, Sprint, Clearwire 등 기존의 6개 회사와 더불어 신규로 함께 가입한 Alvarion과 화웨이가 특허연맹에 새로운 회원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Wimax 특허권 연맹가입과, 자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특허권을 통한 특허 크로스라이선싱 계약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사의 자주적 창의성과 지식재산권에만 의존하는 중국 통신설비 제작업체에 매우 시범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Wimax 통신기술은 IT산업에서 발전한 것이며, 무선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3G 기술 이후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선진국이 주요 시장이다. 그 외 Wimax 기술은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발전 중이다.

통신설비 제조업체인 중국의 화웨이와 ZTE(중흥) 주식회사는 Wimax 산업에서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화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29건의 와이맥스 상용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35건의 Wimax 테스트 권을 보유하고 있다. ZTE는 현재 적극적으로 특허권 연맹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learwire 회사의 Wimax 네트워크와는 이미 1억 달러 가치의 컴퓨터 단말 계약을 맺었다. 2008년에 전 세계에서 새로 발생한 94건의 와이맥스 상용 계약서 중, ZTE는 15건의 상용 계약을 맺었다. 이는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비율로서 상용 계약과 종합경쟁력 부분에서는 세계 2위라고 할 수 있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중국통신설비 기업의 상품은 품질 면에서 좋은 인식을 얻고 있다. 이미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빠른 확장을 보이고 있는 이 때, 중국통신 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사의 핵심기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특허권 장벽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출처 : www.sipo.gov.cn

교토대학 iPS세포연구센터, 미국의 아이즈미 바이오사와 기술 제휴

교 토대학의 물질-세포 통합시스템 거점인 iPS세포연구센터(CIRA: 아마다카 신야 센터장)와 아이즈미 바이오사는, 인공 만능줄기세포(iPS세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서로 교환한 인간 iPS세포를 이용하여 각자 신약 개발이나 세포 치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CIRA와 아이즈미는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인간 iPS세포주의 일부를 교환하게 된다. 의약품 후보물질의 스크리닝, 신약 개발, 세포 치료에 최적인 iPS세포주를 제작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측은 독립적으로 iPS세포주의 비교나 특성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아이즈미는 200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이다. 독일의 마이엘사가 아마다카 교수들과는 별도로 인간 iPS세포 제작 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특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 : www.braina.co.jp

일본 후생노동성, 후발약의 승인 대상 확대로 특허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

일 본 후생노동성은 후발의약품의 승인 심사에서 선발의약품에 관한 모든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승인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후발의약품의 승인 대상을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후발의약품 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청이 용이해지며, 의약품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5월 말 이후에 통지를 발송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승인대상의 기준이 모호하고, 용도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후발의약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통지에서는 선발의약품의 화합물 유효 성분 에 대한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화합물의 새로운 용도나 효능이 관명되었을 때 부여되는 「용도특허」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후발의약품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출처 : www.mhlw.go.jp

일본특허청, 향후 특허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비전의 책정·공표

일 본특허청은 「일본특허청 비전」을 책정하고 발표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일본특허청이 담당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향후 일본특허청은 어떠한 조직을 목표로 할 것인가, 어떠한 직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일본특허청은 이번 비전을 공표하면서 항상 안팎의 지식재산 이용자들을 의식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지식재산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 「목표로 하는 조직」

- 일본특허청은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목표로 한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격려 삼아 더욱 분발하는 일본특허청이 되고 싶다고 한다.

○ 「조직 과제」

-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특허청은 국제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에 공헌한다.
-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동 지침」

- 일본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서 업무를 실시한다.
- 향후 일본특허청의 방향에 대한 비전은,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의해 실현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연성 · 글로벌 관점 · 이용자의 시점 · 설명 책임과 투명성 · 합리성 · 개혁과 개선

출처 www.jpo.go.jp

미 상무장관, 지식재산 보호 및 환경문제에 있어서 미-일의 협력 강조

계 리 라크 미국 상무장관은 일부 아시아 국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환경 대책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 나간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자동차 대기업인 제너럴 모터스(GM)의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사전 조정된 파산은 GM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주요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다음 파산 신청을 단행하는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GM의 재생을 앞당긴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상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郎) 주미대사에게 일·미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해 앞장서는 훌륭한 리더다」라고 평가하면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GM문제에 대해서는 파산법 11조(일본의 민사재생법에 해당)를 신청하여 조기 재건을 도모한 미국 항공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GM에서도 법적 정리의 가능성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출처 www.jiji.com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인권 행동계획」 발표

국무원 정보사무실은 「국가인권 행동계획(2009-2010년)」을 발표했다. 계획에 의하면 각종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대중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권 검색서비스와 서비스 데스크도 새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인권 행동계획」은 중국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정부는 행동계획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무원 정보사무실과 외교부를 책임기관으로 하는 국가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 시스템을 설립했다.

「국가인권 행동계획」은 중국에서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만들어진 국가계획으로서, 향후 2년 동안 중국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시행할 때, 목표와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www.sipo.gov.cn

스웨덴,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 4명에게 금고 1년과 벌금형 판결

불 법 복제한 음악 및 영화를 인터넷상에서 교환하는 목적으로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4명에 대해 스웨덴의 법원이, 금고 1년과 벌금 360만 달러의 실형 판결을 명했다.

피고 4명이 2003년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이트, 「Pirate Bay」에는 등록 이용자 수가 약 3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파일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에 워너브라더스, EMI, 소니 BMG 등의 대기업들이 파일 공유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서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1,2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 4명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피고들이 불법 복제 파일을 업로드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일공유사이트는 인터넷 인프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출처 : www.cnn.co.jp

일본 ACCS 등, 전국 대학에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용 중단 요청문 송부

컴 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 일본레코드협회(RIAJ), 일본국제영화저작권 협회(JIMCA)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요구하는 요청문과 주의 환기용 팸플릿을 전국의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등 총 810개교(2,445학부)에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CCS, RIAJ, JIMCA에서는 매년 공동으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현재 이용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10.3%로 나타나, 2002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그 비율이 10%를 넘었다고 한다. 또 Winny 등의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음악, 영상, 프로그램 등의 파일 중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3단체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심각히 받아 들여, 대책을 세우고 협력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그 첫 활동으로 이번 요청문 송부를 실시했다고 한다.

한편, ACCS에서는 2008년에도 같은 활동을 실시한 바 있지만,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졸업·입학으로 학생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요청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송부된 팸플릿에서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나 정보의 누설과 같은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리플릿을 송부한 후에는 네트워크를 크롤링(crawling)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하는 「P2P파인더」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에 접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대학·고등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재차 주의를 주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www.accsjp.or.jp

Apple社, OPTi社の「Snooping」기술 무단사용으로 특허 침해 제소 위기

iPod 플레이어의 Apple사는 OPTi의 특허기술인 「Predictive Snooping」을 매킨토시 컴퓨터에 무단으로 사용 해왔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진행해 왔다고 OPTi측 변호인단이 주장했다.

OPTi와 캘리포니아의 컴퓨터 칩 전문회사 Mountain View의 변호인단은 Apple사의 이번 기술 침해로 1억9,4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미 배심원단에게 전했다.

OPTi사측 변호사인 Michael Brody Apple사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이미 OPTi사는 Apple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상으로 통보했지만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특허 기술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와 메모리, 기타 장치들 간의 정보교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Apple사는 이 기술로 35억 달러에 해당하는 컴퓨터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Brody가 덧붙였다.

Apple사의 변호인단은 “이 기술이 OPTi가 개발하기 이전부터 알려진 것이므로 특허는 무효이고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한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면 과연 누가 처음으로 이 기술을 발명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만약 법원이 Apple사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면 그 적정한 손해액은 27만 달러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배심원단에게 전했다.

출처 : www.opti-inc.com

일본 와카야마현, 중국에서의 「기슈(紀州)」 상표 신청에 이의 제기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상표국에 「기슈(紀州)」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의 매실 가공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매실 가공업자 39사로 구성된 기슈타나베 우메보시 협동조합(紀州田辺梅干協同組合)과 47사로 구성된 기슈미나베 우메보시 협동조합(紀州みなべ梅干協同組合)이다.

우메보시 조합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과자류 및 과일의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광둥성 소재의 한 식품 회사가 「기슈」라고 하는 명칭을 상표로 신청했다고 한다.

중국 기업이 「기슈」라는 상표를 취득하게 되면, 본고장인 일본 와카야마현의 기업들이 향후 중국에서 「기슈난코 우메(紀州南高梅)」 등 기슈의 명칭을 사용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메보시 조합들은 「기슈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 지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공중에 알려져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중국 상표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특허청이 「기슈(紀州)」를 지역단체상표로 인정하고 있다. 와카야마현 특산품으로는 「기슈미나베의 난코우메」, 「기슈 비장탄(備長炭)」, 「기슈우스이(紀州うすい: 완두의 일종)」 등이 있다. 조합은 「기슈라는 유명 지명 브랜드에 편승하여, 자기 제품의 지명도를 향상시키고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등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www.pref.wakayama.lg.jp

에너지환경리서치센터 재단, Hydrogen Fueling System 특허 등록 추진

미 국 특허상표청은 에너지환경리서치센터(Energy &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EERC)재단이 출원한 고압력 수소(hydrogen) 생산 시스템의 특허 등록을 받아들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특허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알코올이나 에탄올, 메탄올, 가솔린 등의 액체연료를 주입과 동시에 고압력 수소로 전환시켜 주는 기술로, 연료 펌프를 통해 어디서든 요구되는 대로 생산이 가능하므로 수송과 저장의 문제를 해결시켜준다.

미 에너지성(U.S. Department of Energy, DOE)과 85개 이상의 기업 파트너의 지원 아래 EERC 수소 기술 센터의 연구자들은 메탄올에서 수소로 전환을 증명해냈고 군용 제트 연료를 포함한 에탄올과 탄화수소 연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운송버스에 시험 가동되는 수소 연료 주행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며, EERC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투자·추진해 나갈 파트너를 모집 중에 있다.

출처 : www.undeerc.org

Cytori社, 바이오관련 핵심 상품에 관한 미국 특허 취득

C ytori Therapeutics Inc.社는 미특허청으로부터 가슴조직 및 연부조직 복원제품을 위한 핵심적 치료방법을 보호하는 특허에 대한 등록결정통지서를 받았다.

Cytori社는 의료진이 재생의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 의학기술을 제조 및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상업화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취득한 특허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될 Cytori社의 기존 및 장래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Cytori社의 특허기술인「Celution Solution」은 지방세포로부터 추출된 줄기세포를 실시간 응축해 체내에 재투입함으로써 유방암환자의 유방절제술 이후 실시하는 유방재건, 심장 혈관질환, 그 외 방사능 손상으로부터의 피부성형 결점과 미용과 관련해 유방확대, 주름제거수술, 안면 및 손회춘술, 지방세포이식, 윤곽결핍 또는 연부 조직 결핍 복구를 위한 실시간 줄기세포 요법이다.

그 중 자가조직 지방이식을 강화한 줄기세포 및 재생세포에서 얻은 지방조직을 만드는 800/CRS 시스템은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스트레스로 인한 요실금 치료제와 같은 공정에 맞추어진 가속화된 제조과정의 더 낮은 버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Celution Solution」의 다른 대안적인 형태들 역시 보호받게 될 것이다.

줄기세포 및 재생세포에서 얻은 지방세포의 고안 및 방법과 사용에 관한 Cytori社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10개의 미특허와 다수의 국제특허 및 출원 중인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 : www.cytoritx.com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